

광주 어린이보호구역 ‘시작점·끝점’ 표시한다

자치구별 1곳씩 총 5곳 설치...광림초 앞 설치 완료

광주 최초 시범적용 후 전국 표준모델로 확대 기대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이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을 명확히 표시하는 ‘어린이 시선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어린이 시선’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작지점(선)으로 어린이에게 시선을 떼지 말자는 의미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특가법(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저속 운행이 중요해졌으나 명확한 노면표시가 없어 운전자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책 차원에서 이뤄졌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광주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교육청과 함께 지난 6월 협업팀을 구성해 보다 나은 어린이보호 안전대책을 논의했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노면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작·해제선은 운전자가 바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초록색 바탕에 하얀색 글자로 시·종점 표지판과 정확히 일치하게 설치해 어린이보호구역 해당 여부에 대한 오인 요소를 없애게 된다.

시범사업으로 각 자치구별 1곳을 선정해 모두 5곳을 설치할 계획이며 첫 번째로 서구 광림초교 앞에 설치 완료했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29일 “어린이가 더욱 안전하고, 운전자가 명확히 보호구역을 인식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승호기자



미쓰비시 미쓰비시 국내 자산 매각 ‘가능’

대전지법 매각명령...내달 10일 효력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요구한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 압류에 대한 관련 절차 신속 이행’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 측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한 것과 관련해 대전지방법원이 최근 매각 명령 신청에 따른 심문서 전달을 공식송달하기로 결정했다.

매각 명령에 따른 효력 발생은 다음달 10일 지정부터이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압류된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리려면 법원이 피고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대전지법은 공식송달을 통해 해당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이다.

일제 강점기 미쓰비시에 동원됐던 피해자와 유족 5명은 지난 2012년 10월24일 광주지법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018년 11월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 등에게 1인당 1억~1억 5000만 원의 위자료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은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은 지난해 3월22일 대전지법에 미쓰비시가 국내에 특허출원하고 있는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다.

또 같은해 7월23일 대전지법에 매각 명령을 신청했으며 압류된 자산의 채권액은 지난해 1월 사망한 원고 김중근씨를 제외한 4명분으로 8억4000여만원이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미쓰비시 측은 의도적으로 송달절차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배상 명령을 어기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미희기자

공동브랜드 ‘상큼에’ 무화과 매출 100억 돌파 전남농협, 전남도와 공동 개발

농협전남지역본부는 29일 지역본부 8층 회의실에서 전남 과실 공동브랜드 ‘상큼에’를 사용한 무화과의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을 돌파해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남 과실 공동브랜드 ‘상큼에’는 전남도와 전남농협이 지난 2016년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공동개발한 도단위 광역브랜드이다.

FTA 등 과실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외국의 과실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전남의 독자적인 공동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농협은 2016년 브랜드공모와 시민투표를 거친 브랜드 개발을 시작으로 패밀리로 패키지 디자인 개발, 서울·부산·대구·경기 등 전국적인 마케팅을 전개했다.

단감, 무화과, 사과, 만감류, 배 등 취급 품목과 참여농가 수를 확대 시키고 출하량과 출하품질 향상, 출하지역과 참여비율의 확대 등의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김석기 본부장은 “상큼에 무화과의 100억원 돌파는 재배농가의 정성과 노력이 하나하나씩 모여 만들어진 값진 성과”라며 “상큼에가 대한민국 농산물의 파워브랜드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슬로시티 담양, 창평면 삼지내마을 구절초 ‘만개’

아시아 최초로 지정된 슬로시티 창평면 삼지내 마을 돌담길에 만개한 구절초가 돌담과 어울리는 고즈넉한 가을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창평면은 세계절꽃피는 꽃길 가꾸기 사업으로 지난 5월 중순 창평-담양 간 군도 왕복 8km에 코스모스를 심고, 면 소재지 외곽도로에는 분홍달맞이꽃을 심어 세계절 창평을 찾는 손님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 최초로 지정된 슬로시티 창평면 삼지내 마을 돌담길에 만개한 구절초가 돌담과 어울리는 고즈넉한 가을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창평면은 세계절꽃피는 꽃길 가꾸기 사업으로 지난 5월 중순 창평-담양 간 군도 왕복 8km에 코스모스를 심고, 면 소재지 외곽도로에는 분홍달맞이꽃을 심어 세계절 창평을 찾는 손님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함평군, 행안부 주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전남 1위’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등 높은 평가

함평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평가에서 전남도 내 1위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운영 기반과 내부통제 활동 분야 등 2개 분야에 총 14개 평가 지표로 이뤄졌다.

함평군은 올해 추진한 청렴교육 의무 이수

제, 간부 청렴방송, 청렴마일리지 및 청렴주간 운영, 비대면 청렴골든벨 퀴즈대회 등 주요 시책이 각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전남도 본청을 포함한 전남 23개 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평가 총점 105점(가산점 5점 포함) 가운데 99점을 획득했으며, 지난해 대비(82점) 17점을 끌어올리며 A등급을 기록했다.

이상의 함평군은 “연간 계획을 수립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자체평가와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공직 비리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다수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업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오류를 조직이 자체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청백-e시스템·자기진단제도·공직자 자기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함평=김광춘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